

지난 10월 24일, 수유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된 韓國出版學會 주최 제3회 '국제출판학세미나'에 일본측 단장으로 참가한 그곳 원로출판인 누노가와(布川角左衛門·86세)씨를 만나 보았다. 그는 1928년 초창기 岩波書店 편집부에 입사하여 30년을 근무, 1956년 社友로서 동사를 정년사임하고는 栗田 출판판매 회장, 동경대·법정대·동경여대 강사, 일본출판학회 회장, 日本書協相談役, 筑摩書房 대표취체역, 출판윤리협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그야말로 짧지 않은 80평생을 아직도 현역으로 출판외길을 살아가는 원로이다. 필자는 ACCU(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와의 인연으로 누노가와씨와는 20년 가까운 지면이기에 그의 첫 방한을 계기로, 책과 더불어 출판외길을 살아 온 그의 인생과 경력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저작물의 이용과 실제'였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에 버금가는 출판 선진국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UC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도 국제저작권의 元年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모임은 時宜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56년에 이 조약에 억지 찬양이식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는 여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한국에는 처음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소감과 솔직한 충고라도 있다면…?

“겨우 3일 동안의 체한이라 走馬看山일 수밖에 없지만, 敎保文庫의 훌륭한 시설이라든가 한국출판문화 1300년展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敎保에서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청소년들이 열심히 책을 들추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한국 서적출판계에 문제가 있다면, 본래 책이란 독자가 있고서야 존재하는 것인데, 독서층의 폭을 넓히는 독서습관의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선생께서는 지금까지 출판 외길의 일생을 살아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인생에 있어서 책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거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 가자면 우선 먹어야 되는데, 책이란 인간의 머리를 생동케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육신의 음식처럼 머리를 살게 하는 빵이랄 수도 있겠지요. 나는 岩波의 창업주 岩波茂雄씨가 한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좋은 책을 만들면 반드시 독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책과 팔리는 책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는 좋은 책이면서도 팔리는 책을 만드는 데 고심해야 합니다. 무릇 출판은 저자와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것이어야겠지요. 나는, 출판사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출판은 기술과 靈感의 합작

일본 출판계의 원로 布川씨에게 듣는다

對談 · 노양환

又新社대표 · 出協상무이사

누노가와씨는 80평생을 아직도

현역으로 출판 외길을 걸어가신 元老

출판인이다. 그의 풍부한 경험에 바탕한

출판철학과 식견은, 전환기에 선

우리 출판계에 많은 示唆을 준다.



누노가와씨



노양환씨

다. 출판사는 정말 사람이 재산입니다. 저자와 독자가 재산이지요. 일본의 경우, 좋은 저자를 만나서 출판사가 커진 사례도 있지만, 좋은 출판사가 저자를 키워서 성공한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戰後에 출판의 경향이 많이 달라졌지만, 오늘날까지 그래도 岩波가 지탱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출판사의 재산은 著者と 讀者

—선생께서는 영업보다는 편집을 전공하고도 한때 경영이 어려워진 筑摩書房(출판사)의 관리를 맡아 그 회사를 갱생시키셨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편집인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선비정신에 있습니다. 책만 만들었지, 파는 일은 도무지 감 잡입니다. 출판이 아무리 고상해도 책이 상품인 바에야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마(筑摩)의 경우, 창고에 채고는 수없이 쌓이는데 그 유통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장이 되고서부터 편집사원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영업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영업의 체산성을 모르는 편집자는 반신불수입니다. 출판사의 도산은 뇌일혈처럼 멀쩡하다가도 쓰러지게 되니까요.”

—1950년대에 TV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도 한때 출판이 휘청했고, 지금은 마야호로 電子출판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활자매체로서의 출판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류가 오늘에 이르는 동안 과학을 바탕으로 한 문명의 도약을 여러차례 경험하였듯이, 책도 따지고 보면 수없이 變身을 거듭하였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자매체시대에 출판이라고 이대로 담보할 수는 없겠지요. 출판은

얼마든지 그 수단을 수용할 것입니다. 출판이라는 어머니가 전자라는 아들을 두었으니깐 얼마든지 그 폭을 넓히겠지만 출판의 기본, 그 골격은 남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누가 보아도 세계적인 출판 왕국입니다. 전문적인 출판인력이 한국의 경우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종합대학에 출판학과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人材難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이란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기술 플러스 인스피레이션'의 사업입니다.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다면 출판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었어요. 모든 책에는 匠人精神이라 할 根性이 담겨야 되는데, 그것만은 기술처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출판인재가 쏟아져 나올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일본에도 전문학교에 출판과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양성할 선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學科가 아직은 성립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에디터 스쿨'의 연륜이 쌓이고 보니, 이제 차츰 훌륭한 렉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학회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출판교육을 이제는 서둘 때라고 봅니다.”

출판인은 匠人精神 지녀야

—선생께서는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장서와 자료들을 '布川文庫'라는 이름으로 국회도서관에 기탁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쾌척을 하신게 된 동기가랄까, 그 경위에 대해서…?

“모든 수집가들에게는 공통적인 괴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자기만이 그 가치를 누리겠다는 생각과, 둘째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독점욕일 겁니다. 하기가 이런 의욕이 없고 서야 처음부터 수집이 어려울 테지요. 그러나 책은 본질적으로 만인의 것입니다. 나 혼자 쌓아 두면 그 가치는 수천만분의 일도 발휘하지 못하지요. 본래, 나는 내 장서를 바탕으로 15년전부터 '출판연구소'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에 국회도서관에 기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규모는 각종 초판본을 비롯하여 단행본이 8,000점, 잡지가 7,000권, 희귀양서 450책, 그밖의 출판자료들인데 그중에 자랑할 것은 국회도서관에도 목록밖에 없는 것이 18점이나 되지요.”

—선생은 1901년,辛丑생이니까 올해 86세인데 참으로 정정하십니다. 어쩌면 일본 출판계의 최장로이실 텐데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 일까요?

“나는 아직도 나이를 의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남들이 나를 나이들었다고 上座에 앉히더군요. 일본 서적출판계에는 나보다 年上이 둘이 더 있답니다. 有斐閣 社主 江草四郎씨가 88세이고, 일본출판무역 社主 望月政治씨가 102세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네째였는데, 그만 한분이 탈락해서 이제 세째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오늘까지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면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탓일 겁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 7시엔 꼭 일어나고 밤에는 11시에 자리에 듭니다.

집사람을 작년에 앞세우고부터는 小日向의 舊家에서 혼자 조식을 꾸리며 살고 있지요. 가끔 출가한 딸이 와서 살림을 거든답니다.”

—11시에 주무신다는데 벌써 자정이 가깝군요. 내일은 아침 일찍 떠나신다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에 오길 꼭 잘했습니다. 잠시 걸로만 보았지만 한국 출판계의 장래는 무척 밝습니다. 모든 분들의 활기 찬 모습이 부럽군요. ACCU연수생들을 못 만나 서운하지만 안부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노가와씨는 못내 작별이 아쉬운 듯 쓸쓸히 웃어보였다. 그는 일본의 雪郷 나가마縣 長岡 태생으로 젊어서는 마라톤 선수로 뛰었고, 1929년에 법정대학 문학부를 졸업. 阿部能成의 추천으로 岩波書店에 입사. 지금까지 일본출판계의 현역으로 활약해오면서 1958년에 어원의 명저 「出版概論」을 번역했고, 「출판권·출판계약·출판계약서 이야기」, 「岩波書店50년」, 「일본출판百年史年表」를 내어 菊池寬賞을 수상, 「출판事典」 「출판의 諸相」 「책의 주변」 등을 내놓았다.

그의 일상의 좌우명은 “급하거든 돌아라”이다.